

시진핑 사절, 북핵·북중관계 복원 해법 찾을까

북한서 최룡해 등 만나

김정은 면담 여부 관심

트럼프와 북핵 논의내용 전달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특사 자격으로 17일 방북한 송타오(宋濤·사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20일 귀국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송 부장의 이번 방북은 3박4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어 이날 귀국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더욱이 송 부장의 가장 큰 방북 목적으로 여겨졌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소식이 아직 없어 귀국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송 부장은 방북 기간에 최룡해 북한 노



송 부장은 방북 기간에 최룡해 북한 노

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19일에는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 이후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송 부장이 이날 귀국한다면 오후 평양발 베이징행 중국국제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면 중국으로선 대외적으로 절반의 성공만 보여주는 셈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귀국하지 않고 북한에 체류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북측 인사들과 관심사에 의견을 나누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북중간 관계개선 등에 대한 기

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이번 방북은 지난달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결과 설명 차원이지만, 국제사회의 핫 이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 논의 목적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송 부장은 방북 기간에 최룡해·리수용 등을 통해 중국 당대회 결과 설명과 함께 지난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북핵 해법 논의 내용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소원했던 북중관계 복원 노력도 병행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30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중국공산당·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에 최룡해 등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참석을 요청했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송 부장이 시 주석의 특

사 자격으로 방북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지웅(鄭繼永) 푸단(復旦)대 한국·북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우리는 북한이 송 부장의 이번 방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송 부장은 시 주석의 특사로 다른 외교관들과는 매우 다른 신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 문제 처리에 있어 이런 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긴장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런 의미있는 만남에서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수용할 수 있다면 미국에 공이 넘어가고 북중간 공동 인식도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08 무측천 측근 무삼사

무삼사(武三思, ?~707)는 병주 문수 출신으로 측천무후의 이복 오빠 무원경의 아들이다. 무측천의 무주 왕조 수립에 기여했고 측천 사후 종종 치하에서 권세를 누렸으나 황태자 이종준의 쿠데타로 목숨을 잃었다.

측천이 정사를 책임지자 감수국사에 올랐다. 690년 측천이 무주 왕조를 세우니 양왕으로 책봉되어 사촌형 무승사와 함께 권력을 휘둘렀다. 승려 회의를 황제의 신임을 받아 크게 이루 하였다. 696년 유관도 안무대사로 임명되어 거란의 북방 침입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미소년 장역지와 장창종이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항상 붉은 분을 바르고 비단에 수놓은 옷을 입고 황제를 지근에서 보필했다. 무승

장씨 형제에 대한 황제의 신임이 깊어지자 장창종이 도교의 신신인 왕교의 후신이라고 아첨하였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상양궁과 흥태궁을 건설했다. 황제가 즐겨 찾으니 비용이 많이 소요되 백성들이 크게 원망했다.

705년 대신 장간지가 주도한 쿠데타로 측천 황제가 퇴임하고 당 왕조가 부활되었다. 장씨 형제는 주살되었으나 무삼사는 목숨을 건졌다. 대신 유구는 “무삼사가 아직 살아있으니 공들은 끝내 문힐 땅이 없을 것인데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배짱을 물어뜯으려 해도 따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고 주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일찍이 그의 아들인 무승훈은 종종 의 딸 안락공주와 결혼했다. 이에 따라 황제는 무삼사와 더불어 정사를 맡고 장간지 등은 모두 그의 통제를

브라질 상파울루 달군 한류

남미 첫 ‘한류 엑스포’ 개최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한류 엑스포 2017’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 시내 세계무역센터(WTC)에서 열렸다.

한류 엑스포가 남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브라질의 한류 팬과 한인 동포 수천 명이 행사장을 매워 ‘삼바 한류’ 확산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권영성)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한류 엑스포 2017’ 행사장은 크게 ▲한류 전시관 ▲공연 콘서트 ▲체험 행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류 전시관에는 우리 문화의 원류를 알린다는 취지 아래 한복·규방, 공예·한글 부스가 설치됐고, 족두리·노리개·악기 등 공예품 전시와 한복 입기·화장공예·이름 쓰기 등 체험행사도 펼쳐졌다.

/연합뉴스



아셈 외교장관 회의 주재하는 수치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막한 제13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아웅산 수치(맨 오른쪽)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주재로 열린다.

/연합뉴스

트럼프 경고 아랑곳 않는 홍콩의 北저래기업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 가운데 최소 16개가 홍콩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 후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미정국제무역이라는 회사는 북한

의 핵무기 개발과 연계된 한 북한 은행을 위해 위장기업으로 영업했다는 이유로 제재명단에 올랐으나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홍콩 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미국이 지난해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중국 기업 단둥홍상(鴻祥)실업발전의 대표 3명의 이름과 여권번호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홍콩 기업도 7개나 있었다. 이들 기업인 3명은 미국이 제재를 가할 때 대상으로

거명한 기업대표 4명에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제재 대상에 올라 해산한 홍콩 기업 국제무역리더의 배후에 있는 인물은 여전히 홍콩에서 다른 2개 기업을 갖고 있다.

FT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이 된 기업과 연관된 다수의 회계 회사도 버젓이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상임경제개발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15개의 기업이나 개인이 아직도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금융당국이 미국 재무부

의 제재목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연관된 기업이나 개인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독자제재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 대해 단독으로 일방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황태자의 정변...아들과 함께 참형 당해

사. 무삼사 등은 모두 장역지의 대문들을 기웃거리며 신임을 얻고자 다투어 말의 채찍과 고베를 잡으며 하였다. 황제의 측근인 상관완아를 애인으로 삼았다. 그녀는 고종때 측천의 폐위를 도모한 책임으로 처형된 재상 상관의의 손녀였다. 총명하고 문장에도 능해 황제의 최측근이 되었다. 이로써 그의 권세가 더욱 커졌다.

698년 무씨 형제는 황태자가 되기 위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 이에 반대해 재상 적인걸, 장씨 형제는 여흥왕이현을 황태자로 삼기를 주청했다. 적인걸은 폐하께서 이씨 성이 아닌 다른 성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말하기를 “고모와 조카 사이는 어머니와 아들과 비교하면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폐하께서 아들을 세우면 천만년 뒤에 태묘에 모셔져 제사를 올리고 무궁하도록 뒤를 이을 것이지만, 조카를 세우신다면 아직 조카가 천자가 되어가지고 태묘에 고모의 신주를 모셔 놓고 제사를 올랐다는 말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황제는 적인걸, 이소덕 등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무씨 집안이 뒤를 이을 경우 자신의 자식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698년 3월 폐위된 병주에 유배중인 여흥왕이현을 불러들였다. 이로써 무씨 형제의 뜻은 좌절되고 무삼사는 화병이 들어 죽었다.

반게 되었다. 그는 종종 의 황후인 위씨와 사통해 무씨 집안이 다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사공·동중서문화서품으로 재상의 직위에 올라섰다. 그는 위황후와 공모해 공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했다. 706년에는 경위, 환인법, 원서기를 활주 명주 예주 자사로 삼아 지방으로 내쳤다. 종종 의 아들인 이종준이 황태자가 되었는데 생모는 위황후가 아니었다. “성격은 사리에 밝고 결단성이 있으나 법도가 적다”는 평을 들었다. 과감하지만 상례를 벗어나는 성향의 인물이었다. 위황후의 자식이 아닌 끼닭에 누이 안락공주와 그 남편 무승훈에게 엄신여감을 당했다. 당이 다시 부활됐으니 왕조를 천탈했던 무씨 집안을 처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삼사 부자가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누이 안락공주가 공작을 펴 자신을 폐하고 스스로 황태녀가 되려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707년 가을 쿠데타를 일으켜 우림대장군 이다조 등을 끌어들이어 무삼사 부자를 죽였다.

궁궐로 쳐들어갔으나 궁위령 양사육이 이다조의 사위 야호리를 배자 전열이 무너져 결국 패했다. 황태자는 도망치다 측근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무삼사는 태위·양선왕으로 추증되고 무승훈도 개부의동삼사·노총왕으로 추증되었다.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	--	--	--

대표전화 1588-2219